지식경제부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2년 8월 15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에너지자원정책과 이호준 과장(2110-4868), 엄재영 사무관(5412)

에너지 공기업,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

[에너지 기업 CEO 한자리에 모여 안전 경영을 결의]

- CRO 임명, 안전관리 위원회 신설 등 공기업 내부통제 강화
- 에너지안전 전문위원회 신설(에너지 위원회 산하)
- 안전관리 활동을 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

□ '12.8.14(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에너지기업 CEO 결의대회"에서 그 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학계, 연구기관, 관련 업계 등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마련한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

○ 정부는 최근 발생한 고리원전, 보령화력 등 에너지 시설 안전사고를 계기로 에너지 시설 안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에너지 시설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

○ 지경부는 4월초에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민관합동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4개월간 6개 점검반(전력·석유·가스·원전·광산 등)별로 총 107개의 에너지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함

□ 김황식 국무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에너지는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의 생명선과 같다고 강조하면서,

○ 기업 내부적으로 경영효율과 성과의 관리에 비해 안전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 에너지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투명한 안전관리에 나설 것을 당부

□ 한편, 김총리는 지난주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두 차례 주의경보가 발령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 하계전력수급의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 있는 향후 2~3주 동안 국민들이 조금만 더 절전에 노력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다.

□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에너지시설 안전 개선대책" 발표와 함께,

○ 에너지 분야의 민간 및 공기업 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에너지 안전 결의문을 채택하고, 안전을 최우선의 경영목표로 삼고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짐

* 공기업(발전회사, 한전, 한수원, 가스공사,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민간기업(정유·화학·도시가스·LPG 업계) CEO

결 의 문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에너지안전 사회구축을 위해 우리 에너지기업 CEO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을 최우선의 경영방침으로 수립하여 조직내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경영효율화와 안전관리간 조화로운 균형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품질을 높여 나간다.

하나. 우리는 안전에 대한 외부의 목소리에 열린 자세로 귀기울여 안전확보의 기회로 삼는다.

에너지 안전 개선 주요 대책 : ① 안전관리 조직강화

□ **(안전 최우선 경영)** 에너지 공기업 내부에 안전관리 최고책임자(CRO, Chief Risk-management Officer)가 별도 임명되고, 내부통제 기구인 "안전관리 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공기업 조직내 안전관리 업무의 위상이 대폭 강화됨

○ 안전관리 위원회는 객관·독립적 운영을 위해 내부임원뿐만 아니라 교수, 외부전문기관, NGO 등 10인이상으로 구성된 상설기구로서,

○ 핵심 및 취약설비 점검, 작업현장 관행 및 안전 관련규정 개선, 사고 발생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수립 등 기업내부의 명실상부한 안전관련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

○ 기업들은 안전관리 위원회의 구성·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안전분야 경영 혁신계획*"을 기관별로 자체 수립·보고하고 연말까지 시행

* 조직·인사관리, 예산배분시 안전분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 포함

□ **(외부 통제기능 강화)** "에너지 안전 전문위원회(에너지법 근거)" 신설

○ 주요 기업들의 안전관리 위원회 활동 점검, 안전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도출, 기업별 안전관련 내부규정 검토 및 개선권고

□ **(경영평가 제도 개선)** 단기성과와 경영효율에 집중하여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원가절감 노력은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하는 등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를 개선

* 예시) 전력피크 기간에는 고열량탄 사용으로 인한 원가상승 및 영업이익 감소분을 고려하여 수익성을 평가

○ 기관장 경영계약 체결시(지경부 장관-기관장)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별도로 작성하게 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경영평가에 반영

□ **(안전관련 DB구축, 공유)** 정비이력, 고장사례, 복구방법·시기 등을 각 기관별로 DB화하고, 기관별 DB를 연계하여 '에너지 안전 DB'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민간기업·공공기관의 활용 유도

* 기관별 기존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기관간 공유가 가능토록 설계

○ 퇴직자 취업현황 및 자재 납품과정 등에서 비리가 발견된 업체 등에 대한 DB를 구축, 투명한 협력업체 관리시스템 마련

* 퇴직자 취업업체에 대한 감찰강화, 납품비리 업체에 대한 계약참여 제한 등

에너지 안전 개선 주요 대책 : ② 부문별 대책

□ **(에너지원별 대책)** 사고 위험성이 높은 취약설비에 대해서는 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집중관리 대책을 마련

○ **(전 력)** 노후설비에 대한 계속운전 기준 및 절차 제도화*, 안정적 발전소 운영을 위한 저열량탄 사용기준 마련**

* 제3 전문기관 평가를 통해 계속운전 여부 결정(보령 1호기는 준공이후 30년 경과, 자체규정에 따라 지난 '09.8월 계속운전 결정)

** 보일러 형식 및 특성, 마모 및 부식상태 등을 고려한 기준 마련

- 발전소 정비업체 질적 향상을 위한 단계적 경쟁체제 도입 추진

○ **(원 전)** 예방정비 대상확대 및 정비기간 조정*,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투명한 원전 운영을 위한 대국민 신뢰제고*** 등 지속추진

* (주요점검 항목) 50개 → 100개 수준, (정비기간 조정) 모델별 표준공정 도출 등 합리적 수준으로 정비기간 확대 조정

** 납품·구매제도 개선(퇴직자 협력업체 재취업 제한, 계약 정보공개 및 검수강화), 조직 및 인사 혁신(외부인재 영입, 전문 컨설팅을 통한 조직재설계)

*** 민간 전문가 참여확대 및 상시적 원전정보 공개(계획 예방정비시 민간 전문가 참관, 민간 환경감시 기구 기능강화 등)

○ **(가 스)** 저장탱크 및 도심지 고압가스 배관 안전관리 강화*(도시가스사업법령 개정), 대규모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대한 계속운전 기준 마련**

* (저장탱크) 15년 이상 경과 저장탱크 구조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의무화, 저장탱크 모든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 실시(현재 LNG 접촉부에 한정), (배관) 도심지 고압배관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신설

** 노후 대규모 고압가스 제조시설, 도시가스 배관을 대상으로 계속운전 시스템 마련 (석유화학업체 등 652개 대형제조시설 중 39%인 253개소가 20년 이상 가동)

- 반도체 등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독성가스 안전관리 기준 제정 및 독성가스 안전기술 개발('13년 20억) 추진

○ **(석 유)** 지상저장탱크 취약요인 예방*, 송유관 관리강화** 및 지하저장시설 오염예방을 위한 지하수 보호체계*** 마련

* (지상탱크) 석유공사 탱크의 소방시설 작동점검 법적 의무화 및 정유사 소방시설의 작동점검 유인체계 마련

** (송유관) 송유관공사의 배관관리 내부규정 수립 및 시행

*** (지하시설) 주변 지하수 개발시 영향조사 실시 의무화 추진

○ **(광 산)** 광산 보안·안전교육 프로그램 강화*, 광산 관리제도 개정**, 지경부 및 광물자원공사 자원개발 인력확충 및 전문성 제고

*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 갱내채굴시설 소방·방재·구호 교육 강화 등

** 일반 광산을 포함한 광산 보안규정 마련(현재는 석탄광산 관리제도 중심, 광산보안법 개정)

향후 계획

□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에너지기업 안전경영 결의대회를 통해

○ "금일 발표된 대책들은 개별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제도와 문화 전반을 포괄하고 있어, 이러한 대책들이 현장에까지 뿌리내리려면 많은 시간과 추가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 에너지 기업 CEO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거듭 강조함

○ "정부도 금번 대책발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등 소통을 강화하여 안전 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 에너지 안전을 지경부 최우선 어젠다중 하나로 설정하고, 모든 대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

□ 금번 발표한 대책은 6개 분야 200여개 과제중에서 일부만을 발췌

○ 200개 과제중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가 다수 있으며, 이는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

○ 일부는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게 보완·개선

□ 한편, 에너지 공기업들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을 바탕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자체 안전관리 종합 개선대책을 10월까지 수립하고,

○ '12년말 에너지안전 보고대회를 통해 기관별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 등을 발표

□ 지경부는 연말까지 에너지 안전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13년부터는 각 기관별 이행실적을 정례적으로 점검(분기 1회)하고 이를 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

참 고 **에너지기업 CEO 안전결의대회 계획(안)**

1. 목 적

○ 민관합동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장단기 개선대책 발표

○ 에너지기업 CEO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CEO 안전선언문' 발표

2. 행사개요

○ 일 시 : '12. 8. 14(화) 15:00 ~ 16:40

○ 장 소 :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 대강당(288석 규모)

○ 참 석

- 정 부 : 국무총리,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민관합동 위원회(위원장 등 6개 점검반장)
- 에너지기업 : 공기업(발전회사, 한전, 한수원, 가스공사,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민간기업(정유·화학·도시가스·LPG 업계) CEO
- 보령시 관계자 : 시장, 시의회의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노동지청장

3.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05')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15:05~15:10(05')	·진행경과 보고	지경부 장관
15:10~15:16(06')	·동영상 시청 – 국내외 주요 에너지사고 사례	
15:16~16:00(44')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 보령화력 사례발표(영상물 포함) – 민간기업 안전관리 사례발표 – 민관합동 점검결과 발표 – 지식경제부 대책발표 – 격려말씀	중부발전 사장 GS칼텍스 중앙대 윤기봉 교수 정양호 국장 국무총리
16:00~16:10(10')	·CEO 안전선언문 발표	기념촬영
16:10~16:30(20')	·발전소 시설 순시	화재복구 현장